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 2007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 1. 지난해 경기 전망이 왜 벗어났나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는 계육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잠시 지난 2006년 초에 진단했던 종계·부화업 전망에 대한 연초의 글이 현실과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를 먼저 평가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육계산업의 전망은 실제 경기와는 정 반대방향의 예측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예측의 방향이 빗나갔으니 업계 차원에서 볼 때에는 나쁠 것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중 불황에 대한 개연성이 높아서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감수하는 고통이 따랐었다.

이 같이 전망과 실물경기의 차이는 생산과 소비 또는 유통의 변수에 의거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이다. 전망을 통해서 어림땀하나마 경기흐름을 예측한다는 차원

에서 접근한다면 알면서 당하는 고통은 다소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 된다면...

불행히도 지난해 11월 전북의 한 종계장에서 예기치 않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양계업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연말 소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어 새삼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2003년에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추가발병이 없어 국제사회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2006년 11월 23일 예상을 뒤엎고 전북 익산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인근지역으로 확대되어 3년전의 소비위축에 따른 양계업계의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2005년도에는 종계의 분양수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2006년은 모두들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을 우려했으나 여름철의 폭염과 질병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예측을 벗어나는 병아리 부족현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대부분의 계열업체들이 공격경영으로 전환하여 사업계획을 20~50%이상 늘려 잡고 있어서 종계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나머지 원종계사업 신규참여업자가 생기기도 했다.

### 3. 생산된 병아리 모두 입추 가능성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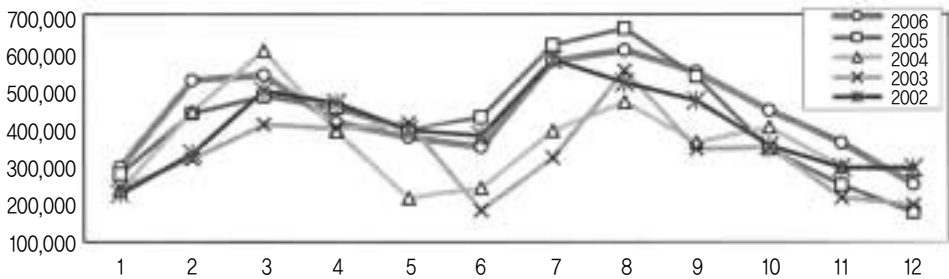
2006년도 종계의 입식수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 더 많이 분양되어 단순한 수치에 근거한다면 생산과잉의 원천이 되리라 진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06년도와 같이 종계의 생산성 저하와 계열업체들의 과잉 팽창경향이 계속된다면 병아리의 수급상황은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리라는 예측도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고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봄이 오기 전 또다시 재발하여 닭고기의 소비회복이 정상시의 수준을 뒤따라주지 못한다면 육계가격이나 닭고기 가격은 전반적으로 생산비 이하에서 머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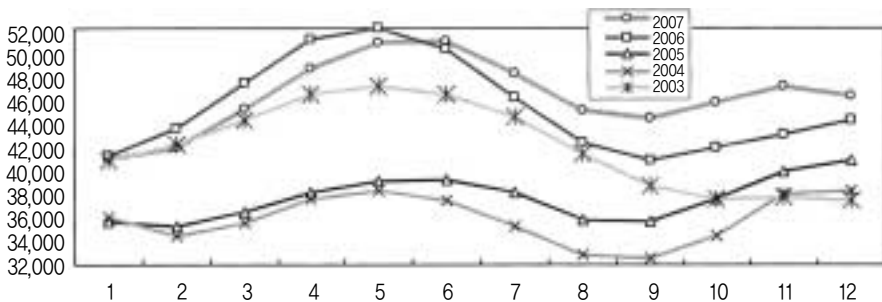
### 4. 통계로 보는 2007년도 육계 생산 전망

〈표 1〉, 〈표 2〉 참조.

〈표 1〉 지난 5년간 종계분양현황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 5. 종계 500만수 입추가 정착된 시대인가..

2006년의 종계 입식량은 상반기 약 240만수 보다 하반기가 260만수로 약간 더 입식됐으며, 2006년의 종계 분양수수는 2005년 대비 약 6% 늘어났다. 과거 육계업의 역사로 볼 때 한 반기에 260만수대의 종계입식은 엄청난 물량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종계 입식수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종계규모도 이제는 500만수대가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원종계 농장들의 상황을 볼 때 이미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종계생산량 모두 판매계획이 잡힌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07년도의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종계생산성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꾸준한 생산량 과잉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또한 2006년도에 과잉 분양된 종계가 연장 생산 내지는 환우로까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과잉생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표 2>를 통해 볼 수 있다.

## 6. 닭 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

닭고기 소비에 대한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여 경기 전망을 했으므로 이번에는 반대로 닭고기 소비에 대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자 한다.

### 1) 닭고기 수입

미국과 우리나라의 FTA 협상타결이 이루어져 미국산 닭고기가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을 상당히 황폐화시킬 수 있으므로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 2) 조류인플루엔자

2006년 하반기에 다시 발병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닭고기 소비는 순간적으로 약 50%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앞으로 가을철 이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할 가능성과 함께 겨울철로 접어드는 10월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 조류인플루

엔자 발생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빈번해지면 닭고기 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

### 3) 과잉 분양된 종계수수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2006년은 육계업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종계가 분양되었다. 종계의 생산성이 정상화되고 계열업체들의 공격경영이 지속될 경우 병아리의 입식량은 최대가 되어 출혈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신규 원종계 농장의 출현

지난 3년간 호경기의 결과 모든 계열업체들의 과잉팽창계획의 산물로 신규 원종계 농장 출현은 결국 과다한 종계판매로 이어져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황의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7. 종계 입식수수 보다 소비확대가 시장 좌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종계의 분양수수가 그 다음해의 경기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2006년도에 우리는 경험했다. 종계의 입식수수가 절대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았다는 원인을 분석해 볼 때 닭고기의 소비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면 하는 바램을 해 본다.



하지만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원인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대부분의 업계종사자들은 2006년도 종계의 입식수수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종계의 과잉입식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하지만 대략 3~4년간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가는 것은 경기에 따른 생산수수의 변수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약 20여 만수의 종계가 도태되었다는 이유로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기대가 아닐는지. 일부의 계열업체에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벌써부터 내년의 병아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지만 분양된 종계의 수수가 워낙 많기에 이들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모두 입식에 가담한다면 닭값은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날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